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③ 고구려 고분군(Complex of Koguryo tombs)



이준훈
포천시의회장
경기도문화원장협의회

고구려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두 번째 오래된 세계문화유산은 북한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고구려 고분군(高句麗 古墳群)"이다.

고구려의 벽화 고분은 현재까지 모두 90여 기(평양·안악 지역 68기, 집안·환인 지역 23기)가 발견되었다. 이를 제작 기법·벽화 주제 등의 변화 및 전개 과정에 따라 나누면 세 시기로 구분된다. 제1기는 3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걸치는 시기이다. 두방(二室墳)이나 여러 방 무덤(多室墳)에서는 주로 생활 풍속 그림이, 외방무덤에는 사신이 그려졌다. 생활 풍속은 죽은 자 생전의 공적(公的) 생활 가운데 기념할 만한 것과 사적(私的) 생활의 중요로움이 내세에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신(四神)은 좌 청룡, 우 백호, 남 주작, 북 현무의 순서로

그려졌다.

평양·안악 지역 고분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안악 3호분(安岳3號墳)과 덕흥리 벽화고분(德興里壁畫古墳)을 들 수 있다. 집안 지역의 벽화 고분으로는 각저총(角抵塚)·무용총(舞踊塚)이 잘 알려져 있다. 각저총은 씨름하는 모습이, 무용총은 가무도(歌舞圖)와 사냥도가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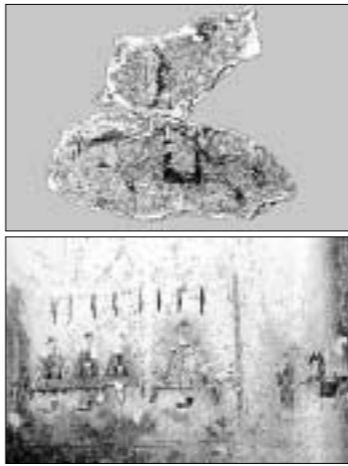
무용총은 제1기에 속하는 집안 지역 벽화 고분 가운데 벽화에 사신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무덤이기도 하다. 이 시기 집안 지역 고분 벽화의 인물들은 흔히 고구려 특유의 점무늬가 있는 옷을 입은 모습으로 그려져, 평양 지역 고분 벽화 인물의 일반적인 복장과 대조를 보인다.

제2기는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초에 걸치는 시기로, 외방 혹은 두방무덤에 생활 풍속과 사신, 혹은 생활 풍속과 장식 무늬가 공존하는 그림과 장식 무늬만을 주제로 한 그림이 많이 그려졌다. 이 가운데 주류를 이루는 것은 평양·안악 지역에서는 생활 풍

속과 사신, 집안 지역에서는 생활 풍속과 장식 무늬가 공존하는 벽화이다.

제3기는 6세기 중엽에서 7세기 전반에 걸치는 시기로, 날방만 있는 외방무덤에 사신 그림이 즐겨 그려졌다. 평양·안악 지역의 진파리 4호분(眞波里4號墳)·내리 1호분(內里1號墳)·강서대묘(江西大墓)·강서중묘(江西中墓)를 들 수 있다. 집안 지역의 벽화 고분으로는 통구사신총(通溝四神塚)·오회분 5호묘·오회분 4호묘를 꼽을 수 있다. 이 시기 고분 벽화의 사신은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유일한 표현 요소이며, 단순한 별자리의 형상이 아닌 죽은 이의 세계를 지켜 주는 수호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구려의 고분벽화와 고분양식은 한반도의 고대국가인 백제와 신라, 가야(加耶), 그리고 일본열도에까지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 2004년 7월 1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북한 소재 고구려 문화유산의 공식 명칭은 '고구려 고분군'이다. 모두 5개



위에서부터 가마돌, 수렴총

지역 고분 63기(벽화고분 16기 포함)로 구성됐으며, 평양 동명왕릉 등 진파리 고분 15기, 평양 호남리 사신총과 호남리 1~16호분 등 주변의 고분 34기, 평안남도 대동군 덕화리 고분 3기, 평안남도 강서군 강서삼묘, 덕흥리·약수리·수산리 고분과 용강군 용강대총·쌍영총 등 8기, 황해남도 안악군 안악 1~3호분 3기 등이다.

세익스피어 에세이

지도자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박정근
대전대학교
영문학과교수

우리 사회는 오랜 왕조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같은 특권층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민주 사회를 지향하였다. 더욱더 지배층의 특권을 정당화시켜주고 국민들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강요하는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이조 오백년을 지배해왔고 지금까지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서구 민주주의를 최선의 가치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 완성을 위해서 4.19 혁명, 광주 5월 혁명, 6월 민주화 운동 등의 자생적이고, 능동적인 국민적 저항운동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역사적으로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 사회는 통일문제, FTA 등의 골치만 경제문제, 중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문제 등의 국가의 운명을 가능하는 책임을 질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다.

4년 전에 이루어진 대선에서 선택한 지도자가 우리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선택한 자들의 몫이다. 선택의 권한만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시민정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책임의 식은 차후의 선택에 대해 신중하게 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스스로 실천해온 민주적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좌우 대립이나 동서 지역감정이라는 고질병에 걸려서 아직도 치유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대사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은 이상적인 민주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고질병의 후유증이 나타나 울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모순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4~5년마다 치르는 선거가 그 괴질의 발단이 된다. 벌써 11개월이나 남아있는 대선의 열풍이 불어오면서 고질은 사회적 히스테리의 가벼운 가려움증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지도자는 결코 학연과 지연, 또는 계급적 동질성으로 뽑는 선거게임이 아니다. 자칫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공동체의 파멸과 좌절을 가져오기 때

문에 국민 각자의 운명을 가능하는 중요한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 세익스피어의 '햄릿'에서 형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한 클라우디우스에게 아부하는 햄릿의 친구 로렌크란츠는 최고 권력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끼적인 개체의 마음은 온 정신력을 갑옷 삼아 위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자 합니다. 허나 수많은 생명이 의존하고 그 위에 안식하는 정신은 더더욱 그러하죠. 군주의 죽음은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소용돌이 물처럼 가까운 주변 것들을 끌고 갑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운명적으로 움직임을 혼자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가 잘못되거나 죽음을 당하면 그가 통치하는 국가가 위험한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지도자의 실정이 가져올 후폭풍이 클라우디우스처럼 죽음이 죽음을 다시 낳아 많은 사람들이 그의 부덕으로 인해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비극이 과생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클라우디우스 같은 부덕한 지도자라 할 지라도 그가 가진 권력의 힘 때문에 그의 행위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햄릿'을 살펴보면 그가 저지른 친족살해를 숨기려고 국민들의 신망을 얻고 있는 햄릿을 제거하기 위해 플로리우스 같은 간신에게 감시하도록 한다.

그 결과 거트루드의 방에서 엿듣다가 부왕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하는 햄릿에게 클라우디우스로 오인 받아 죽음을 당한다. 그의 죽음은 햄릿과 그의 아들 레아티스의 대결을 가져오며, 두 사람은 클라우디우스가 독약을 바른 칼에 서로 찔러 죽음을 당하게 되며, 왕비 거트루드마저 햄릿을 죽이기 위해 마련한 독주를 햄릿을 위해 촉배 하려고 마시는 바람에 덩달아 죽고 만다.

햄릿은 클라우디우스의 음모를 깨닫고 마지막 복수의 결행을 함으로써 그의 가슴을 찌른다. 그 아발로 한 지도자의 죄악이 가져오는 파멸의 연속이다. 로렌크란츠는 잘못된 지도자의 파멸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정말 놓은 산꼭대기에 고정된 거대한 바위와 같아서 그 바위살에 수많은 작은 것들이 조립되고 결합해 바위가 굴러내리면 거기가 하나하나를 기다리는 건 요란한 파멸뿐이죠. 왕은 모두 다 함께 아픈 소리를 내지 않으면 홀로 한숨 쉬는 적은 결코 없죠"라고 말한다.

물론 그가 클라우디우스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왕의 파멸이 가져오는 불행을 비유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울바른 지도자가 보다는 잘못된 지도자가 파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다.

한국 사회는 통일문제, FTA 등의 골치만 경제문제, 중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문제 등의 국가의 운명을 가능하는 책임을 질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다.

4년 전에 이루어진 대선에서 선택한 지도자가 우리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선택한 자들의 몫이다. 선택의 권한만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시민정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책임의식은 차후의 선택에 대해 신중하게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많은 시민들의 경제고가 와셔도 안 되고, 그의 잘못된 통일정책으로 남북통일이 멀어져서도 안 된다. 이번민은 철저한 검증과 합리적 판단 아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기 바란다.

교육에세이 35

꿈과 희망의 꽃은 향기롭다

해마다 3월이 오고 또 4월이 오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은 여전히 보랏빛으로 아리고, 눈빛은 또 여전히 싱그러울 뿐 아니라 희망의 물결로 출렁이게 된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희망경기 교육'을 또한 우리 포천교육청에서도 '희망포천교육'을 개칭되었습니다. (catch phrase)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희망이란, 학생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듯이 미래에 대한 자신의 기대감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지만, 진정한 희망이란 바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 꿈과 희망, 그리고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막연한 희망보다 구체적인 희망을 가질 때 성취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1세기의 주역으로 차세대를 이끌어나갈 청춘의 꿈을 가득 안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학생은 꿈을 키우며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꿈을 키워야만 희망을 가꿀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천의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고 관리할 줄 알며, 명확한 실현 미래를 준비하고 스스로를 경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노력을 하는 사람만이 성공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청소년은 과연 무엇이 희망을 걸어야 할지 스스로 자신을 생각하고 성공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초석을 견고히 해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요소가 두 가지 있는데, 그 하나는 희망이요 다른 하나는 희망을 성취할 때까지 정진하는 끈의 의지(정신력)입니다. (희망과 원리)의 저자(著者)인 막스 에른스트(Max Ernst)는 사유(思惟)는 초월하는 행위이다 라고 말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에너지 중의 하나는 아마도 희망일 것입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 바라는 것,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모두 희망입니다. 나 혼자만의 희망, 친구와 함께 이루고자 하는 희망, 지역사회, 희망, 자연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희망, 세계의 희망, 그리고 우주의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은 이토록 다양한 겹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희망의 빛입니다. 빛의 역할을 다해 미래를 가꿔나가기 바랍니다. 미래는 꿈꾸는 사람의 것입니다.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큰 꿈으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크고 위대한 일은 꿈이 크고 위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희망을 가꿔 새 불에 기(氣)를 받아 파란 새 색이 돌아나듯이 알찬 결실의 성취감을 맛보

아야 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내일이 확연히 보입니다.

이번 달을 열심히 살면 다음 달이 보이고, 올 해(年)를 열심히 살면 내년이 기대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1년 후의 일, 5년 후의 일을 고민하기 보다는 오늘을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아야 하겠지요. 인생의 여정(旅程)에서 지름길은 없으며 분명한 목표를 지니고 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며, 지름길인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의 축적은 실로 마법과 같은 상승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슨 일이나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성을 가지고 일에 몰두해야만 그 일이 성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생활해야 합니다. 매사에 뜨거운 정성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 목표는 마치 불꽃렌즈와 같아서, 목표가 있음으로써 삶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치명적인 실수를 예방해주고 노력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목표는 자신의 자아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고 구체적인 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체계적인 실천계획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



지정주
포천여자중학교 교장

기 위하여 밝은 희망으로 열심히 노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1월 10일자 본란을 통해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생활할 것을 언급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이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고, 반드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반성을 하는 사람은 실패가 없으며, 실패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 발돋움해 나가는 우리 포천의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도 각급 학교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global) 인재가 되기 위한 준비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삶은 그 준비를 성실하게 엮어온 젊음에게 틀림없이 맑은 흘러 내기에 따른 자랑스런 면류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회에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영위하면서 '인생은 밝은 희망을 품고 노력을 계속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각인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생활하는 방식이 흔들리고 잘 안될 것 같은 생각과 혼령을 짓어내는 기분이 들 때야말로 자신의 일에 더욱 전력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을 반듯하게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꿈과 희망을 안고 밝은 미래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민주평통 포천시협의회 명사 초청 강의



북한의 핵실험과 4강 구도에서 6자회담의 성공이라는 현실을 바로 알고 온 국민이 함께 통일의 길을 열어 가는데 참여 하고자 통일교실을 개최하오니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535-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현실 설명회

- ▶개최일시 : 2007년 3월 23일(금) 14:00~16:00
- ▶강의장소 : 포천시복지회관(노인대학 강당) 2층
- ▶강의제목 : 4강의 권력구조와 북한의 현실
- ▶강 사 : 설용수 박사 (전 세계일보 사장, 현 남북사회문화연구소 이사장, 통일교육원 교수)

민주평통 경기도지역회 포천시 개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도 지역회에서는 3월중 월례회의를 포천시청에서 개최합니다.
- ▶개최일시 : 2007년 3월 28일(수) 11:00~13:00
- ▶회의장소 : 포천시청회의실
- ▶참석예정 : 경기도 지역회의 임원(경기시장 유용근), 경기도 시군협의회장, 사무처 경기 담당관, 포천시 협의회 임원, 포천시의회 의원 등
- ▶진행계획 : 시정홍보, 지역회의 안건, 사무처 공지, 오찬 및 중요문화재 답사 등

명사초청 통일강의

- ▶개최일시 : 2007년 4월 13일(금) 14:00~16:00
- ▶강의장소 : 포천시복지회관(노인대학 강당) 2층
- ▶강의제목 : 최근 동북아 정세와 민족의 혼
- ▶강 사 : 김삼웅 독립기념관장

